




Thailand

8th RaonAtti
September Report



September Report

INDEX

Thailand
8th RaonAtti

01 Welcome !

02 Visit

03 Activity

04 Learn

05 etc



Wel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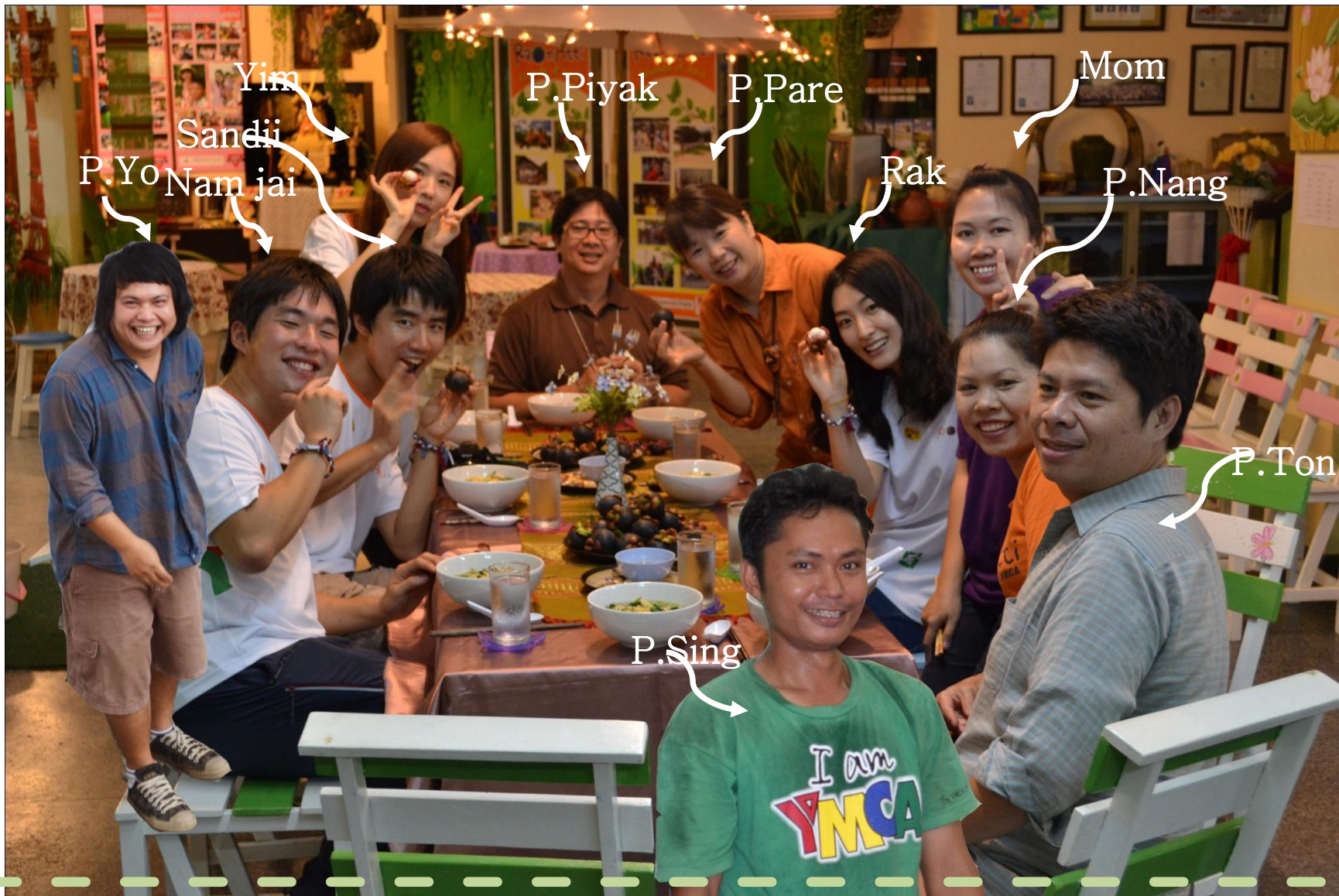
두근두근, 설레는 출발 그리고
만남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니,
우리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
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ㅎㅎ



Welcome!

태국 치앙마이에 새로운 가족이 생
기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5 Arrived Chiang Mai</p>	<p>6 Orientation Welcome party</p>	<p>7 Thai class Activity with JKY</p>	<p>8 Join the YMCA activity at SKP YMCA</p>
<p>9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p>	<p>10 Day off Meatless campaign</p>	<p>11 Thai Class Visit CMU</p>	<p>12 Thai Class Preservation about environment</p>	<p>13 Visit YMCA saohin environmental & energy preservation</p>	<p>14 Visit YMCA saohin environmental & energy preservation</p>	<p>15 Volunteering program YMCA Attended to the board member meeting</p>
<p>16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p>	<p>17 Visit Maejo university Meatless campaign</p>	<p>18 Thai class Preparing Activity with the secondary school student</p>	<p>19 Thai class Preparing Activity with the secondary school student</p>	<p>20 Activity with the secondary school student</p>	<p>21 Thai class Visit the network school and learning about the local wisdom</p>	<p>22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p>
<p>23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p>	<p>24 Thai class Activity Banbua khang school Meatless campaign</p>	<p>25 Painting Activity Banbua khang school</p>	<p>26 Thai class Visit organic market, Department store</p>	<p>27 Day off</p>	<p>28 Thai class</p>	<p>29 The YMCA network event (Bowling)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 Welcome the YMCA board member</p>
<p>30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p>						

Welcome!

태국 치앙마이에 새로운 가족이 생
기다

"우린 이제 가족이고
이 곳은, 너희 집이야."

우리에게 피프레가 던
진
첫 한마디.



두근두근 떨리는 맘을 안고
도착한 산캄팽 YMCA.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식구들과
맛있는 음식 덕에
기분 좋은 시작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Welcome!

새로운 이름,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치앙마이 Y 가족들과의
오리엔테이션!

산캄팡Y와 우리의
스케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
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첫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350ppm 텀블러 증정식
도 있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불리게 될 새로
운 이름도 받았어요!

Welcome!

새로운 이름,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락(은선)
누군가를,
무언가를,
보호해주라는 뜻
(어벤져스 돌음)



임(지연)
늘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
Smile☺



샌디(용택)
매우 아주 정말 정말
많이 좋다는 뜻



남짜이(라식)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뜻

Welcome!

웰컴파티, 만남, 만남, 만
남



우리를 환영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던 웰컴파티! 산캠팬Y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활동을 해나갈 분들과 인사를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웰컴파티를 위한 준비를 밤늦게까지 해서 피곤했지만

우리의 공연을 보고 즐거워 하는 분들을 보니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Visit!

YMCA. 또 다른 가족



사오힌Y와 치앙마이Y를 방문해서 기관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활동과 연결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Visit!

친구 만들
거



치앙마이 대학교(CMU)를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하고, 교수님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웰컴파티 때 만나서 SNS로 연락을 하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 소개를 하고
수업을 참관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Visit!

친구 만들
거



치앙마이에 있는 Y들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또래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





우리는 Organic 마켓과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두 곳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Organic 마켓은 직접 재배한 작물들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유통과정이 없어 저렴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일정한 가격이 유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Organic 마켓 방문 후에는 백화점에 갔는데, 어느 백화점과 똑같이 깔끔하고 시원했고 다양한 제품들이 모여있었지만 역시 가격이 비쌌어요. 두 곳을 모두 둘러보니 태국도 한국과 똑같이 전통시장과 대형마켓의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Organic 마켓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모델이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Activity

YMCA 주말학교, 연습 또 연습



Y송, 한복 종이 접기, 한국 게임, 친구얼굴 그리기와 같은 예체능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첫 주엔 네 명이 함께 들어갔지만 두 번째 주부터 두 명씩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빌리지에 들어가서 하게 될 학교에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었지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친해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지의 학생들과 함께 한 우리의 첫 공식활동이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강남스타일'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보다 K-POP을 더 잘 알았고 춤도 더 잘 춰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환영과 호응을 해주어 고마웠어요. 이를 통해 라온아띠들이 지금까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왔고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와 이미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지요.

앞으로 이 친구들과 하게 될 활동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되요 ☺

Activity

MEJO 대학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우리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던 메조대학교.
우리는 여기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일 동안 준비했지만 당일 아침에 갑작스레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고, 우리는 당황하고 긴장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지 못했어요. 좀 더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전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모든 학과와 커다란 부지가 전부 농업기술, 과학을 위해 존재한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정말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들!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방쿠아캄 중학교에서
첫째 날은 한국에 대한 소개,
둘째 날은 350PPM에 대한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메조에서의 실수를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요.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첫째 날, 우리는 한국을 소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쓰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K-POP에 대해 알고 있었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물론 반가웠지만, 아이들에게 한국은 K-POP이 전부인 것 같이 보여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개한 내용들이 한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둘째 날, 350PPM을 소개했는데,
내용을 그냥 전달하기에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
프레젠테이션 보다 이해를 돕는 활동에 비
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는 350ppm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약속 손도장 찍기,
에코낙시게임을 진행했습니다.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Activity

방쿠아캄 중학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





Learn

사오힌 YMCA,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SaoHin YMCA에서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이틀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태국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함께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지요.

Learn

사오힌 YMCA,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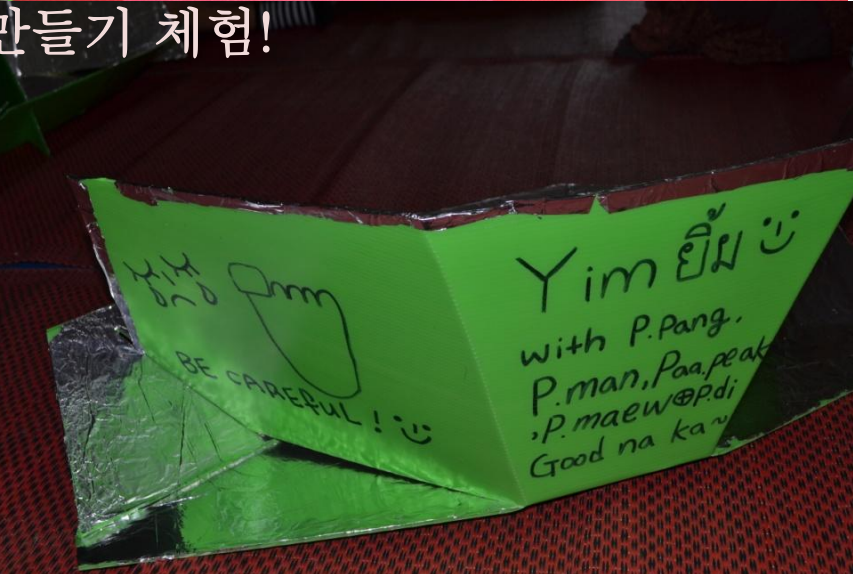
특히 Solar Energy를 사용해서
직접 요리를 한 것이 신기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지만
대체 에너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Learn

사오힌 YMCA,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솔라오븐 만들기 체험!



사오힌 YMCA,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BioGas! 가축의 배설물을 이용해 요리용 가스를 만드는 BioGas 시스템은 태국의
환경과

여건을 잘 고려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
스템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반영한 대체에너지를 만들 수 없을까 고
민하게 되었지요.

Learn

피땀과 함께하는 즐거운 태국어수

한국말과 영어 끝에도 '카'를 붙이게 된다는 7기분들의 말씀에 공감하며
열심히~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

사왓디카~깁카오르양카?
(안녕하세요~ 밥먹었나요?)

찬꺼두아이ㅠㅠ
(나도나도ㅠㅠ)

양마이다이깁카~히유막막~
(아직안먹었어요 엄청배고파요ㅠㅠ)





Etc.

고기 없는 월요일도 너무나 맛있는
식탁



Etc.

350ppm을 생활속에서!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행동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런치박스, 손수건, 텀블러 이용
언플러그, 자전거 이용, 수도꼭지 잠그기,
휴지 조금씩 이용, 이면지 사용, 에코백
사용, 일회용 봉지 받지 않기 등등
나의 효과, 나비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태국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tc.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P
Yo



Etc.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P
Yo



Etc.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P
Yo



산캄팽YMCA 앞 도로에는 매주 토요일
워킹스트리트이 열린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차량을 통제하면 상인들이 도로 전체가
시장이 돼요. 재미있는 것도, 신기한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은 워킹스트리트이 너무 좋아요!

이 곳을 구경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흔히 가는
마트나 백화점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앞으로 진행할 거리캠페인들도
워킹스트리트에서 할거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워킹스트리트!
앞으로도 영원하길 뽀에버 ☺



Etc.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산감평YMCA 안에 있는 놀이터가 녹슬어 다시 칠하는 작업을 했어요. 더웠지만 아이들이 새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다음에 다시 칠해야 할 것 같아요 T.T..

저희 마음에도 눈물이 주르륵.....

자전거와

350ppm



매일 저녁 자전거 타는 것을 이용하여 350ppm을 홍보하기로 했어요. 깃발을 매달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깃발을 나눠줄 생각이예요. ☺ good!

Etc.

신나는 데이오
프!





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갔다. 태국과 산캄땡Y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곳에 익숙해졌다. 2012년 9월, 나는 '김지연'이 아닌 '웃음'이란 뜻의 '임'으로 지내고 있다.

'임'하고 부르며 짓는 사람들의 웃음이 좋고 그 웃음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태국에 와서는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 꽃, 별, 달, 옆집 아이들,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집 뒤편에 있는 담벼락에 앉아 반딧불이를 보거나 3층 옥상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산을 보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나만의 취미도 생겼다.

이렇게 조금씩 작은 것에 웃음을 찾고 소중함을 느끼는 '임'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을 얻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한 달 뒤에도 그 답을 얻긴 힘들 것이다. 그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남짜이 = Kindness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본 첫달.

나는 과연 이름값은 하는사람이었을지...지금의 나는 과연 한달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을지...생각은 좀 깨였는지...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된 한 달이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일들을 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밀도 높은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첫 주와 둘째 주엔 이들을 닮아가는 법을 생각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열리는 Walking Street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법을 배웠고, 단골 카페가 생겼으며, Welcome party때 우리를 환영해 주기 위해 찾아왔던 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두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았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도 사라졌고, 어디에 예쁜 집이 있고, 어디가 노을을 바라보기 좋은 장소인지도 알았다.

지금은 점점 욕심이 커진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많은 것을 하고 싶다. 지금의 이런 마음이 이곳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기를!!!!



샌디: 너무나도 즐거운 한달 이었다. 분명 내가 25년 동안 살았던 나라가 아닌 태국이라는,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걷고 있는 길,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바람,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까지.. 그리고 콕치 !! ^^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그리고 그들의 미소는 내 마음 속에 계속 남을 것 같다.

한달 동안 적지 않은 활동들을 했다. 활동을 하면서 나의 역할과 관계 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활동이나 캠페인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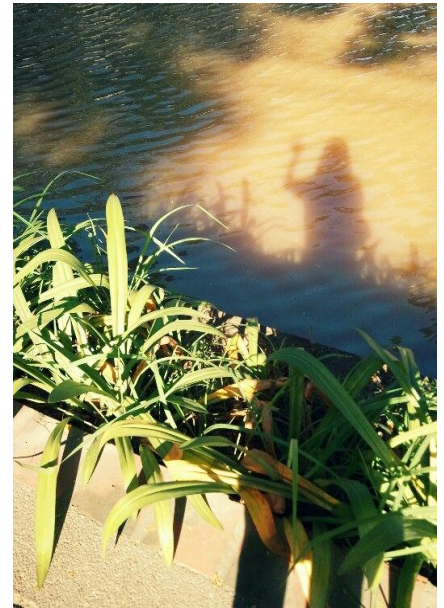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활동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작 그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좀 더 노력하는 나머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락: 자전거를 타고 산캄퐁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에는 없는 열대나무들과 난생처음 보는 꽃들, 집들도 신기하지만, 내가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의 '웃음' 이었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친구를 보듯 사왓디카-하며 싱긋 웃어주고, 내가 무언가를 실수 할 때에도 싱긋 웃으면서 머리 아픈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한 달동안 이곳에 살면서 나는 그 전보다 내가 많이 '웃고 있다'고 느낀다. 고작 한 달이지만, 그들의 색깔에 나도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뒤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많이 변하고 다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그들의 여유로움이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뿐. 어쨌든,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려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려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려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려



한달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
려





Thank
You